

少陰人 病證 및 處方에 나타난 桂枝湯의 變用에 대한 考察

金正熙* · 宋正模*

A Study about modification of Gejitang that showed on symptom and prescription about Soumin

Kim Jeong-hee, Song Jeong-mo

We got these results after studying about modification of Gejitang(桂枝湯) that showed on symptom and prescription about Soumin(少陰人).

1. There are totally eleven prescriptions related to Gejitang appeared on Dongyi-Soose-Bowon(東醫壽世保元). Among them, one is prescription of Danguisayoktang(當歸四逆湯) in prescription of Discussion of Cold Induced Disorder(傷寒論) and another is Gejibujatang(桂枝附子湯) in Won-Myung dynasty period(元明時代). There are nine prescriptions in LeeJae-Ma(李濟馬)'s pre-scription and we can see there are many prescriptions used prescriptions related to Gejitang for Mang Yang(亡陽).
2. Pre-prescriptions related to Gejitang has seven prescriptions in Extra-disease(表病證), and two prescriptions in Intra-disease(裏病證) which are analyzed as modified prescription from Gejitang.
3. Although 藿香正氣散, 香蘇散, 芎歸香蘇散, 八物君子湯 etc. are not modified prescriptions of Gejitang, We can see that its are brought up to be on the same with alternative remedy of Gejitang in each step of symptoms.

*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4. Symptoms are exactly classified in Soumin, the prescription which is used in different symptoms of diseases is similar in raw materials. It's because the remedy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is used under the same purpose that maintain Yangnan Qi(陽暖之氣).
5. We could realize that Panax ginseng(人蔘), Cinnamomum Cassia(肉桂) and Aconitum Carmichali(附子) are commonly important to reinforce Yangnan Qi because the more disease got worse, the more patient lost Yangnan Qi on both Extra-disease and Intra-disease in the Soumin's disease.

초 록

1. 목 적

대부분의 四象處方은 기존 처방을 기본 모델로 하여 加減의 형식을 취하면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少陰人은 다른 체질에 비해 기존 한의학에서 이미 病證과 藥理가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다고 하였는바 少陰人의 病證과 藥理가 다른 체질에 비해 기존 한의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四象處方 형성이 기존 한의학에서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著者は 少陰人의 기본 모델링이 된 處方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處方이라 할 수 있는 桂枝湯이 少陰人 病證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病證에 따라 어떻게 變用되는가를 考察해 봄으로써 少陰人의 病證藥理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 1) 少陰人의 病證을 表裏 病證으로 구분하고 病證 藥理 用藥을 정리하였다.
- 2) 既存 韓醫學에서의 桂枝湯에 대한 解釋과 方解를 傷寒論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東醫壽世保元에서의 桂枝湯證에 대한 해석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 3) 桂枝湯의 連系方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桂枝, 芍藥, 生薑이 모두 들어있으며 그 처방 자체가 桂枝湯의 정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하였다.
- 4)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처방 중 桂枝湯의 連系方을 傷寒論 經驗方, 後世方中 少陰人病에 經驗한 要方中 桂枝湯의 連系方, 그리고 少陰人 新定處方중 表病證과 裏病證에 사용하는 連系方중에 桂枝湯 連系方들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 5) 이 외에 桂枝湯의 連系方은 아니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이와 유사한 정신이 들어 있는 처방들을 분류하였다.

3. 결 론

新定處方중 계지탕 연계방은 表病에 7方이 있고 裏病에 2方이 있는데 표병증에는 천궁계지탕, 황기계지탕, 승양익기탕, 승양익기부자탕, 황기계지부자탕, 인삼계지부자탕, 인삼관계부자탕 등이, 이병증에는 계지반하생강탕, 산밀탕 등이 계지탕에서 變用된 처방으로 해석되며, 표병에서는 양기의 진퇴강약에 따라, 이병에서는 냉기의 취산경중에 따라 병증구분과 처방의 내용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곽향정기산, 향소산, 궁귀향소산, 팔물군자탕 등은 계지탕의 變方은 아니지만 각각의 病證 단계에 있어서 桂枝湯 變方과 같은 정신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陰人에서 病證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병증에 사용되는 처방이 내용상 유사한 점을 보이는데, 이는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유지한다는 동일한 목표에서 升降概念의 치법이 운용되기 때문으로 파악 된다.

I. 緒 論

李濟馬는 「格致叢」에서 四象醫學의 原理論을 형성하는 철학적 기초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철학적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四象醫學은 기존 한의학과는 다른 독특한 醫學 體系를 이루었다.¹⁾

李濟馬는 「醫源論」에서 자신의 醫學史觀을 밝히고 있는데 神農·黃帝이후의 의학 발전 과정을論하였으며 시대가 흐르면서 前代의 의학을 잇고 이전의 의학을 보완하여 전수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東武 자신도 이러한 脈을 이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傳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²⁾

四象醫學은 四象原理에 입각해서 기존 한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비판, 재해석하여 형성되었는데, 치료의 실질적 수단인 處方도 역시 四象原理에 의해 비판, 재해석되어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四象處方은 기존 처방을 기본 모델로 하여 加減의 형식을 취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少陰人은 다른 체질에 비해 기존 한의학에서 이미 病證과 藥理가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少陰人의 病證과

藥理가 완성되었는데, 逆으로 少陰人의 病證과 藥理가 다른 체질에 비해 기존 한의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四象處方 형성이 기존 한의학에서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少陰人의 기본 모델링이 된 處方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處方이라 할 수 있는 桂枝湯이 少陰人 病證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病證에 따라 어떻게 變用되는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少陰人 表病과 裏病의 概要

少陰人은 臟腑的으로 脾大腎小한 特徵을 지니며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大別된다. 그리고 表病證은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區別되며 裏病證은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區別된다. 表病證은 陽氣의 進退強弱여부에 따라 輕重이 나뉘게 되고 裏病

1) 전국한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p40, 1997

2)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 :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關한 文獻考察(I), 사상의학회지 7(1), p169, 1995

證은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라 輕重이 나뉘게 된다. 少陰人은 전체적으로 중심세력이 아래에 있어 陰化되기 쉬우므로 陽暖之氣가 保命之主라는 것을 바탕으로 昇降概念을 운용한다. 그 중에서 表病證은 腎大함으로 인해 생긴 陰化된 기운을 어떻게 陽化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升陽益氣를 治法으로 하고 있으며, 裏病은 脾小로 인해 생긴 陰實之氣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裏陰降氣를 治法으로 하였다.³⁾

1)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의 病機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은 少陰人이 脾局의 陽氣가 寒邪에 억눌린 바가 되어서 腎局의 陽氣가 그 寒邪의 저항을 받아 不能直升하여 脾局에 連接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병증으로 無汗者는 鬱狂證으로 有汗者는 亡陽證으로 大分된다. 鬱狂證의 無汗은 陽氣常存한데 營衛陰陽만의 不和한 所致이니 順證이며, 亡陽證은 鬱狂證에 비해 훨씬 逆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少陰人 表病證은 陽氣의 進退強弱 여부에 따라 輕重을 나누는데 太陽病, 陽明病으로 나누는 정신이 있다.

(1) 鬱狂證

[傷寒論]⁴⁾

[111]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但小腹急結者.....

[131] 太陽病.....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瘕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 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

[132] 太陽病.....小便自利 其人如狂

者.....

[151] 婦人中風 發熱惡寒.....語者 此爲熱入血室也.

[153] 婦人傷寒 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即語如見鬼狀者 此爲熱入血室.....

[東醫壽世保元]⁵⁾

[8-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 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菴香正氣散.....

[8-11] 論曰 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困熱則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8-12] 張仲景所論 下焦蓄血證 卽 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其人如狂者 其人亂言也 如見鬼狀者 恍惚譫語也 太陽病 表證因在者 身熱煩腦而惡寒之證 間有之 太陽病 外證除者 身熱煩腦而 惡寒之證 都無之也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鬱狂證과 亡陽證은 汗出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無汗者는 鬱狂證이요 有汗者는 亡陽證으로 나뉘게 된다.

傷寒論에서는 下焦蓄血·熱入血室등으로 鬱狂證의 病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체질학교실 역음 : 前掲書, p156.

4) 蔡仁植 : 傷寒論譯說, 서울, 高文社, p.89,100,101,113,115, 1991

5)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p150,153,154, 1992

張仲景은 체질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까닭에 病證은 있었으나 病理와 治法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傷寒論에서는 桂枝湯을 有汗에 사용하였으나 壽世保元에서는 無汗을 鬱狂證으로 분류하여 桂枝湯이나 川芎桂枝湯등을 사용하였고, 有汗은 亡陽證으로 보아 黃芪桂枝湯등을 사용하였다. 李濟馬는 鬱狂證의 病證을 陽氣不升의 문제로 보아 保命之氣를 중시하였으며 升陽益氣의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鬱狂證은 病證의 정도에 따라 初證·中證·末證으로 세분된다. 鬱狂證의 初證은 太陽病 表證이 아직 있으면서 안절부절못하는 증세이고, 中證은 陽明胃家實로 大便이 不通되는 것이며, 末證은 陽明病에 潮熱이 있으며 狂言微喘直視하는 증세를 말한다.⁶⁾ 鬱狂證의 治方을 初證·中證·末證으로 나누어보면, 初證에는 桂枝湯이나 川芎桂枝湯·香蘇散·芎歸香蘇散·藜香正氣散 등을, 中證에는 八物君子湯이나 十全大補湯 등을, 末證에는 獨參八物湯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亡陽證

亡陽證은 鬱狂證에 비해 陽氣가 虛한 病證인데, 亡陽證은 진행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는데, 初證은 太陽病에 發熱·惡寒·自汗이 있는 것이고 中證은 惡寒은 없고 도리어 惡熱이 있으면서 自汗이 있는 것이고, 末證은 陽明病에 發熱이 있고 汗이 많이 나는 것을 말한다.⁷⁾ 亡陽證의 治方을 初證, 中證, 末證으로 나누면 初證에는 黃芪桂枝湯이 사용되고, 中證에는 升陽益氣湯·補中益氣湯 등이 사용되며, 末證에는 人蔘桂枝附子湯·黃芪桂枝附子湯·升

陽益氣附子湯 등이 사용된다.

亡陽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汗出의 개념인데, 특히 少陰人의 汗을 경계한 이유는 본래 升陽之氣가 不足하고 脾胃가 虛弱하므로 陽虛하기 쉬워 少陰人이 汗을 내는 것은 陽虛가 더욱 심해진 것이고, 특히 汗이 계속하여 많이 나오면 이것은 陽이 陰脫狀態로 빠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鬱狂證, 亡陽證 모두 상승하지 못하는 陽氣를 어떻게 상승시키느냐에 基本治療方向이 정해지는데 鬱狂證의 無汗은 陽氣常存한데 營衛陰陽간의 不和한 所致이니 調和營衛하면 되고 亡陽證의 有汗은 陽氣不足으로 인한 津液外脫이므로 治本하기 위하여 陽氣上昇을 목표로 升陽益氣법을 구사한다.⁸⁾

(가) 기존 한의학과 壽世保元에서의 亡陽證의 比較

[傷寒論]⁹⁾

[22]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30] 傷寒 脈浮 自汗出 小便難 心煩 微惡寒 脚攣急 反與桂枝湯 欲功其表 此誤也

[31]虛即兩脛攣 病證象桂枝 因加附子 參其間增桂 令汗出 附子 溫經 亡陽故也.

[290]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 而復吐利

[293] 少陰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脈弱澀者 復不可下之

[東醫壽世保元]¹⁰⁾

[8-5]發熱惡寒而 有汗者 此 亡陽初

6) 高炳熙 : 少陰人 少陽人病證論의 概要, 서울, 月刊韓方系6월호, p31, 1991

7) 高炳熙 : 前掲書, p31

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학연구소 역음 : 前掲書, p155

9) 蔡仁植 : 前掲書, p.24, 33, 35, 36, 203, 204

10) 洪淳用, 李乙浩 : 前掲書, p.150, 169, 260

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
止 病不愈則 當用 黃芪桂枝附子湯 人蔘
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8-37] 亡陽病證 非但 觀於汗也 必 觀於小便多
少也 若 小便清利而 自汗出則 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澀而 自汗出則 陽明病
發熱汗多也 此危證也.....

[12-31].....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通則 煩熱而 汗多也 此之謂 亡陽
病也.....

[12-32] 亡陽者 陽 不上升而 反爲下降則 亡陽
也.....

기존 한의학에서의 亡陽을 陽氣가 虛脫하여 나타
나는 病理的 變化로 보았다. 亡陽은 汗出不止 或 吐
瀉過極 或은 其他原因으로 陽氣를 耗損함으로써 陽氣
가 突然 衰竭하여 大汗이 淋漓하여 汗出이 구슬 같
고 微粘하며 畏寒하고 手足冷·呼吸微弱·面色蒼
白·脈微欲絕等證이 나타나는데 亡陽은 대개 亡陰이
더 진행한 것이며, 陰液이 過度하게 損傷되면 그에
따라 陽氣도 亡脫된다고 보았다.¹¹⁾ 기존 한의학에
서는 亡陽과 亡陰은 증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相互互
根으로 보아 主次가 다를 뿐 완전히 孤立的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¹²⁾

기존 한의학에서는 汗出過多를 亡陽의 주된 原因

으로 보았으나 李濟馬는 陰陽升降의 失調로 인해 亡
陽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¹³⁾ 즉 亡陽證의 기전을
陽이 上升하지 못하고 도리어 下降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한의학에서는 亡陽과 亡陰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亡陰에서 더 진행
되어 亡陽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며 四象醫學에서는
少陰人 表病證에서 亡陽證, 少陽人의 表病證에서 亡
陰證이 발생된다고 하여 體質病證의 차원에서 파악
하였다.¹⁴⁾ 그리고 亡陽證에서 汗出에 대한 의미를
기존 한의학에서는 原因으로 파악하려고 한 대 반해
李濟馬는 汗出을 升降失調로 인한 症狀, 또는 現狀
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나) 亡陽證의 病證藥理의 形成

亡陽證에 대한 認識은 內經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으나¹⁵⁾¹⁶⁾ 傷寒論에 이르러서야 亡陽證의 病證藥
理가 소상히 밝혀졌다. 傷寒論에서는 亡陽證에 대한
病證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張仲景은
體質의 認識이 없었던 까닭에 亡陽을 發汗過多로 인
해 汗漏不止하고 惡風, 小便難, 四肢微急하고 屈伸
이 어렵게 된 것만으로 정의하였으며 桂枝加附子湯
을 治方으로 삼았다. 즉 傷寒論에서는 汗出로 인해
亡陽이 발생되며 亡陽을 津液外脫徵候로 認識하였
다.¹⁷⁾ 그러나 亡陽證의 治療에 있어서 陽氣의 회복
을 치료의 觀點으로 다룬 점이 壽世保元에서와 유사

11) 文潯典 等篇,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p129, 1990

12) 李鳳教 等篇, 韓方診斷學(上下), 서울, 成輔社, p.39-40, 1988

13) 金龍國 : 亡陽, 亡陰證에 對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사상학회지 3(1), p.79.80, 1991

14) 金龍國 : 前掲書, p87.

15) 郭孺春 : 黃帝內經 素問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p.23, 29, 95, 201, 1993

16) 郭孺春 : 黃帝內經 靈樞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p.260, 405, 1993

17) 朱鍾犬, 金敬堯 :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9(2), p.72, 1997

한 면이 있다.18) 그리고 傷寒論에서 太陽病의 誤治로 인해 汗漏不止되고 少陰까지 波及되어 亡陽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壽世保元에서 亡陽證이 末證에 이르러서는 少陰證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處方 또한 亡陽末證의 升陽益氣附子湯과 少陰證의 官桂附子理中湯이 유사한데 모두 表裏俱虛가 있다. 이는 어디에 중점이 있는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張仲景의 桂枝加附子湯은 醫學入門에 이르러서는 桂枝附子湯으로 變用 되었으며, 壽世保元の 新定處方形成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醫學入門에서는 傷寒論의 桂枝加附子湯에 溫陽의 作用을 강화시키고자 附子の 量을 늘려 桂枝附子湯을 形成하였는데19) 이 桂枝附子湯은 壽世保元に 이르러서는 黃芪桂枝附子湯·人蔘桂枝附子湯·升陽益氣附子湯등으로 變用된다. 壽世保元 이전의 文獻들에서 汗出로 인해 발생하는 病證에 대한 認識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體質概念이 없었기 때문에 각 體質의 汗을 구별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李濟馬의 病證論은 既存 病證觀을 四象體質病證觀으로 재조명하여 서술하였다. 壽世保元에서의 亡陽證은 傷寒論의 桂枝湯證 및 脾約證에 해당되는데 桂枝湯證과 亡陽病의 汗出이 津液虛脫의 徵候이므로 初期에는 桂枝湯에 固表止汗의 效능을 가진 黃芪를 가미하여 黃芪桂枝湯을 제시하여 津液虛脫을 방지하며, 中證은 升陽益氣시켜 陽氣의 高탈을 방지하는 의미로 升陽益氣湯·補中益氣湯을 사용하고, 末證의 陽明病 發熱汗多者에게는 附子和 肉桂

등을 사용하여 脾氣가 絶하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였다.

2) 少陰人 胃受寒裏寒病의 病機

少陰人의 裏病은 表病에 비해 病證發生에 있어서 情志가 보다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게 되는데20) 樂性이 極하여 喜好不定함으로써 裏氣에 범한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라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대별된다. 少陰人은 脾小한 장기적 특성 때문에 脾陽이 不足하여 陰化되기 쉬운데 太陰病은 裏氣인 大腸에 冷氣가 聚하였으나 腸胃의 溫氣가 손상 받지 않아 大腸의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여 생하는 病證이고, 少陰病은 裏氣인 大腸의 冷氣가 腸胃의 溫氣를 抑壓하여 腸胃의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여 생기는 病證이다. 이에 대한 治療法으로는 溫胃降陰시키는 健脾降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裏陰降氣를 治療의 大綱으로 設定하였다.

太陰證과 少陰證은 육경변증에서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는데 腹痛과 泄瀉를 기본 증상으로 하여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구분한다. 그 중 太陰證은 '口中有和 無口渴 而有腹痛 自利者'이며 少陰證은 '口中不和 有口渴 而有腹痛 自利者'라 정의하였다.

太陰證의 泄瀉는 大腸의 寒氣를 胃 속의 溫氣가 축출하는 泄瀉이고, 太陰證의 泄瀉는 大腸逆證概念이고 表裏俱病이다.

少陰人 治法의 大綱은 裏陰降氣인데 太陰證에 있어서는 溫氣가 寒氣를 밀어내는 것인 즉 그 溫氣를 도와주면서 裏陰을 내려주는 방법, 다시 말하여 溫

18) 李培生 :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56, 1987

19)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125, 1994

20) 洪淳用, 李乙浩 : 前掲書, p.194

少陰病傷寒 欲吐不吐 心煩但欲寐者 此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喜好者 所慾也 何故 至於計窮力屈而得此少陰病乎.....

胃而降陰法을 사용하였고, 少陰證에 있어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深部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므로 脾氣를 도와주면서 降陰시키는 健脾而降陰法을 사용하였다.²¹⁾

이상의 少陰人 病證과 藥理 및 治法 用藥을 정리하면 다음 表와 같다.(表1)

2. 桂枝湯과 桂枝湯證

1) 기존 한의학에서의 桂枝湯²²⁾

〔構成〕 桂枝 3錢, 芍藥 2錢, 甘草 1錢, 生薑 3片, 大棗 2枚

〔出典〕 傷寒論

〔藥物分析〕

桂枝는 性味가 辛·甘·溫하고 發汗解肌·溫經通脈·通陽化氣하는 效能이 있다. 白芍藥은 性味가

苦·酸·涼하고 柔肝止痛·養血斂陰하는 效能이 있다. 生薑은 性味가 辛·溫하고 發汗解表·溫中止嘔·溫肺止咳하는 效能이 있다. 大棗는 性味가 甘·溫하고 補脾和胃·益氣生津하는 效能이 있다. 甘草는 性味가 甘·平하고 調和諸藥·補脾益氣하는 效能이 있다.

〔方解〕

桂枝는 君藥으로서 風寒을 散하여 肌表를 解하고 白芍藥은 臣藥으로서 斂陰和營하여 桂枝의 辛散作用이 傷陰하지 않도록 하며 二藥은 一散一收되어 營衛를 調和시켜 表邪를 解하게 하고 裏氣를 和하게 한다. 生薑은 桂枝를 도와 表邪를 散하고 大棗는 白芍藥을 도와 營衛를 和하게 하므로 함께 佐藥이 되며 甘草는 諸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이 된다. 이와 같이 諸藥을 配伍하여 解肌發表·調和營衛의 效能이 있는 방제가 된다.

〈丑 1〉 少陰人 病證 藥理 用藥

表裏	病證	· 病證特徵	輕重區分	治法	病證 用藥	
表病證 (腎受熱 表熱病)	鬱 初	自汗不出	陽氣進退強弱	升陽益氣	升陽益氣	川芎桂枝湯, 藿香正氣散, 芎歸香蘇散
	狂 中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 香附子八物湯
	證 末					獨參八物湯
	亡 初	自汗出		升陽益氣 固表	升陽益氣	黃芪桂枝湯
	陽 中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證 末					人參桂枝附子湯, 黃芪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裏病證 (胃受寒 裏寒病)	太陰證	口中和 口不渴	冷氣聚散輕重	溫 降 胃 陰 而	裏陰降氣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香砂六君子湯, 蘇合香元, 寬中湯,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煩燥無				
		身體痛表證無				
	少陰證	口中不和 口渴		健 降 脾 陰 而	裏陰降氣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煩燥有				
		身體痛表證有				

* 위 表는 少陰人 病證藥理表²³⁾를 참조로 하여 만들.

21) 高炳熙 : 前掲書, p.32

22) 宋一炳 :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關한 考察, 사상학회지, 10 (2), p8, 1998

23) 李尙仁等篇 : 方劑學, 서울, 永林社, p.48, 1990

〔桂枝湯의 變用〕

後世方에 있어서 桂枝湯은 다른 처방으로 다양하게 변화 운용되는데 桂枝湯에서 芍藥을 倍로 증량시켜 桂枝加芍藥湯이 형성된다.²⁴⁾ 그리고 桂枝加芍藥湯에 飴糖을 君藥으로 들어가서 小建中湯이 되는데 이는 桂枝湯의 太陽을 外解하고 調和營衛의 작용이나 桂枝加芍藥湯의 太陽太陰 합병으로 인한 腹滿 時痛 치료와는 전혀 다른 溫中補虛劑가 된다.²⁵⁾²⁶⁾ 그리고 小建中湯에 黃芪를 加하면 氣虛로 나타나는 自汗·短氣·困倦 등의 증상을 겸한 것을 치료하는 黃芪建中湯이 된다. 다시 黃芪建中湯에 飴糖을 去하고 四物湯이 合해지면 雙和湯이 형성된다.²⁷⁾

〈參考〉

* 醫方集解²⁸⁾

解肌少和

桂枝辛甘 發散爲君 臣以芍藥之酸收 佐以甘草之甘平 不令走泄陰氣也

薑辛溫能散 棗甘溫能和 此不專于發散 又以行脾之津液而和營衛者也

* 醫綜金鑑²⁹⁾

桂枝辛溫 辛能發散 溫通衛陽 芍藥酸寒 酸能收斂 寒主陰營

生薑之辛 佐桂枝以解表 大棗之甘 佐芍藥以和中 甘草 甘平 調和中氣 表裏諸藥

2) 傷寒論에서의 桂枝湯

(1) 桂枝湯에 관한 事項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을 傷寒과 傷風으로 大分하는데 傷寒證은 表實證이며 傷風證은 表虛證이다. 그리고 桂枝湯은 表虛證인 傷風證을 治療하는데 사용된다. 桂枝湯은 外感風寒虛證인 脈浮緩·頭痛·發熱·惡寒·惡風·身疼汗出을 治하는 處方으로 傷寒論에서 桂枝湯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熱自發 陰弱者汗自出 齋齋惡寒 漸漸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
- [14] 太陽病 頭痛發熱 汗出惡風者 桂枝湯主之
- [25]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則愈
- [43] 太陽病 外證未解 脈浮弱者 當以汗解 宜桂枝湯
- [45] 太陽病 外證未解 不可下也 下之爲逆 欲解外者 宜桂枝湯
- [54] 病常自汗出者 此爲營氣和 營氣和者 外不諧以衛氣不共營氣和諧故爾 以營行脈中 衛行脈外 復發其汗 營衛和則愈 宜桂枝湯
- [55] 病人藏無他病 時發熱 自汗出而不愈者 此衛氣不和也 先其時發汗則愈 宜桂枝湯
- [58] 傷寒發汗已 解半日許復煩 脈浮數者 更可發汗 宜桂枝湯
- [98]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營弱衛強故使汗出

24) 蔡仁植 : 前掲書, p302

25) 申載鏞 : 方藥合編解說, 서울, 圖書出版 成輔社, p48, 1989

26) 李尙仁等篇 : 上掲書, p.148

27) 申載鏞 : 上掲書, p39

28) 汪訥庵 : 醫方集解, 서울, 一社, p.46, 47, 1978

29) 東洋醫學叢書Ⅳ 方劑學: 서울, 一社, p20, 1990

欲救邪風者 宜桂枝湯

[243] 陽明病 脈遲 汗出多 微惡寒者 表未解也 可發汗 宜桂枝湯

[283] 太陰病 脈浮者 可發汗 宜桂枝湯

이상의 11개 條는 桂枝湯方 使用에 關한 것이다.

[13]조는 太陽傷風證의 症候·病機·治法·方藥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條文이다. [13] [43]은 無汗의 境遇요 [14]는 有汗의 境遇이며 [43] [45]는 太陽病外證未解의 境遇요 [25] [58]은 再次 發汗 境遇며 [54] [55]는 自汗의 境遇인데 그중 [54]는 病常自汗이다. [243]은 陽明病 微惡寒·汗出多의 境遇로 太陽陽明合病의 境遇인데 [243] [283]은 合病證에서 桂枝湯 使用의 境遇이다. [25]는 桂枝湯證 鍼刺療法の 境遇이다.³⁰⁾³¹⁾

傷寒論에서 桂枝湯證의 病因은 外感風寒邪인데 風寒邪가 外束하여 衛強營弱하게되어 營衛不調가 되는 것이 桂枝湯證의 病理라고 볼 수 있다. 평소 表虛體質者가 風寒邪에 感受되면서 衛陽과 邪氣가 相爭하게 되어 發熱이 나타나게 되며 肌腠不密한데 衛陽이 外邪에 傷하게 되어 衛外不固하고 營內不守하면 營陰이 外泄되어 發汗이 된다. 汗出하면 營弱이 되고 毛孔이 疏松되어 風邪의 侵入을 이기지 못하여 惡風이 생긴다. 또 汗出은 營陰을 더욱 弱化 시켜서 脈이 緩象을 나타낸다. 傷寒論에서의 營衛의 觀點은 營陰은 內部를 固守하여 衛陽의 基礎가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衛陽은 外部에 運行하며 營陰의 護衛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桂枝湯의 主治에서 解肌의 意味는 弛緩시킨다는 意味보다는 邪氣를 풀어 없앤다는 뜻으로 營衛를 調和시켜 治療한다는 意味인데 營衛가 調和되면서 附隨적으로 汗이 난다는 意味이다.³²⁾³³⁾

이상 傷寒論에서의 桂枝湯에 關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桂枝湯을 太陽病 傷風證인 表虛證을 主治하며 頭痛·發熱·汗出·惡風·脈浮數緩等症을 目標로 한다. 그리고 傷寒論에서는 桂枝湯의 作用이 滋陰和陽하며 調和營衛하고 解肌發汗한다고 認識하였다.³⁴⁾

(2) 傷寒論에서의 桂枝湯類 19方³⁵⁾

桂枝加附子湯, 桂枝加桂湯, 桂枝去芍藥湯, 桂枝芍藥加附子湯, 桂枝加厚朴杏仁湯, 小建中湯, 桂枝加芍藥生薑人參新加湯, 桂枝甘草湯, 茯苓桂枝甘草大棗湯, 桂枝麻黃各半湯, 桂枝二麻黃一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桂枝二越婢一湯,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桂枝加葛根湯, 桂枝加芍藥湯, 桂枝加大黃湯

2) 壽世保元에서의 桂枝湯證

壽世保元에서의 桂枝湯證은 少陰人 表病證의 鬱狂初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방으로 川芎桂枝湯이 사용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에서 有汗者는 桂枝湯을 쓰고

30)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한얼문고, p.234, 1973

31) 李培生 : 前掲書, p26-39

32) 李培生 : 前掲書 p.11, 12

33) 傷寒論 註釋書들에서 桂枝湯證의 病機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解釋도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을 病機로 삼았다.

34) 蔡仁植 : 前掲書, p279

35) 尹吉榮 : 前掲書, p.308

無汗者에는 麻黃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壽世保元에서는 發熱,惡寒,無汗은 鬱狂證으로 分類하고 無汗者에는 川芎桂枝湯을 쓰고 有汗者에는 黃芪桂枝湯이나 升陽益氣湯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傷寒論에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太陽病에서 有汗은 傷風이요 無汗은 傷寒이다. 그리고 太陽傷風證의 有汗에 桂枝湯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東武가 여기에서 말한 無汗은 太陽傷寒의 無汗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壽世保元에서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發熱惡寒者'이라 하여 太陽傷風病을 인용하였는데 傷風證에는 有汗과 無汗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少陰人の 無汗은 傷寒論에서 말하는 無汗과는 다른 의미인데, 少陰人 表病論에서의 無汗은 현재는 無汗이나 체질적인 소인으로 보아 장차 汗이 自出할 無汗이고 傷寒論에서 無汗은 체질적 소인으로 장차 도 汗이 自出할 수 없는 無汗이다. 李濟馬는 少陰人 表病論은 傷寒論의 桂枝湯證을 주로 인용하였고 太陰人은 傷寒論의 麻黃湯證을 주로 인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3. 壽世保元 少陰人 處方중 桂枝湯의 連系方

1) 傷寒論 經驗方중 桂枝湯의 連系方

當歸四逆湯³⁶⁾³⁷⁾

白芍藥 當歸 各2錢, 桂枝 1錢5分, 細辛 通草 甘草 各1錢

少陰病의 陰盛隔陽과 手足厥冷症을 治한다.

2) 後世方중 少陰人病에 經驗한 要方중 桂枝湯의 連系方

桂枝附子湯³⁸⁾

附子炮 桂枝 各3錢, 白芍藥 2錢, 甘草灸 1錢, 薑 3片, 棗 2枚

此方 出於李樹醫學入門書中 治汗漏不止 四肢拘急 難以屈伸

4. 少陰人 新定處方중 表病證에 사용되는 桂枝湯 連系方

1) 處方內容 및 目的

(1) 川芎桂枝湯³⁹⁾

桂枝 3錢, 白芍藥 2錢, 川芎 蒼朮 陳皮 甘草灸 各 1, 薑 3片, 棗 2枚

川芎桂枝湯은 桂枝湯에 川芎·蒼朮·陳皮가 加味된 處方으로 少陰人 鬱狂證의 初期 증세를 治療할 目的으로 사용된다. 解肌의 效能을 가진 桂枝湯에 '壯脾而外攘之力'의 藥性を 지닌 川芎, 祛濕의 效能을 가진 蒼朮, '錯綜脾氣之參五調'의 藥性を 가진 陳皮의 效能이 綜合되어 완성되었다.⁴⁰⁾ 傷寒方의 桂枝湯은 脾胃의 寒으로 인해 升陽力이 부족해져서 막힌 것을 뚫기에는 藥力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李濟馬는 蒼朮·陳皮를 加하여 막히는 근원인 脾胃 쪽을 溫胃시키며 가볍게 뚫어주고자 立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학교실 역음 : 前掲書, p456

37) 洪淳用, 李乙浩 : 前掲書, p.220

38)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학교실 역음 : 前掲書, p.457, 458

39)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학교실 역음 : 前掲書, p461

40) 朱鍾天, 金敬堯 : 前掲書, p84

(2) 黃芪桂枝湯⁴¹⁾

桂枝 3錢, 白芍藥 黃芪 各2錢, 白何首烏 當歸 甘草 各1錢, 薑 3片, 棗 2枚

本方은 亡陽初證을 治療할 목적으로 사용한 處方으로 桂枝湯에 黃芪·白何首烏·當歸를 加한 處方이다. 當歸는 壯脾而有內守之力을 지니고 있어 蒼朮처럼 疏通시키는 作用은 없지만 陽氣가 도망가는 것을 막아주고 陽氣를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作用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黃芪는 亡陽汗으로 인한 陽氣虛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⁴²⁾ 白何首烏는 人蔘과 效能이 비슷하면서도 人蔘에 비해 清越之力은 떨어지지만 陽氣를 보충해주는 作用은 人蔘보다 강하므로 亡陽證의 陽虛를 치료하기 위해서 加味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效能의 黃芪와 當歸 및 白何首烏의 효능이 본래의 桂枝湯에 結合되어 亡陽初證에 사용하는 黃芪桂枝湯이 이루어졌다.

黃芪桂枝湯과 川芎桂枝湯은 桂枝湯에 각각 3가지의 藥材가 加味되어 각각 鬱狂證과 亡陽證을 主治하게 되는데 몇 가지 藥材만을 加味함으로써 서로 다른 病證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이 升陽益氣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川芎桂枝湯은 正氣와 邪氣가 싸우면서 약간 막힌 상태이므로 蒼朮·陳皮 등을 사용하여 鬱滯를 풀어주지만, 亡陽의 虛證에 쓰이는 黃芪桂枝湯은 이것을 빼고 黃芪·當歸·白芍藥을 加하여 補中益氣하여 虛를 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升陽益氣湯⁴³⁾

人蔘 桂枝 白芍藥 黃芪 各2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 各1錢, 薑 3片, 棗 2枚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의 亡陽證을 治療할 목적으로 사용한 處方이다. 이 處方은 黃芪桂枝湯에 人蔘이 加해지고 桂枝가 1錢 줄어든 대신 官桂가 1錢 加해진 處方이다. 朱⁴⁴⁾는 補中益氣湯에서 비롯된 處方으로 보았는데 處方 내용상 黃芪桂枝湯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桂枝湯의 正神과 補中益氣湯의 正神이 結合되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 處方に 附子를 加하면 升陽益氣附子湯이 되는데 升陽益氣湯은 이미 亡陽證이 생겨서 땀이 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이 處方은 미리 亡陽證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쓰는 處方이다.

(4) 升陽益氣附子湯⁴⁵⁾

人蔘 桂枝 白芍藥 黃芪 各2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 各1錢, 附子炮 1-2錢, 薑 3片, 棗 2枚

이 處方은 升陽益氣湯에 附子를 加한 處方이며, 人蔘桂枝附子湯에 人蔘과 桂枝를 各1錢씩 줄이고 白何首烏와 官桂를 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升陽益氣附子湯은 亡陽證에 사용하는 處方들 중에서 특히 陽氣를 보충해 주는데 主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處方이다.

(5) 黃芪桂枝附子湯⁴⁶⁾

桂枝 黃芪 各 3錢, 白芍藥 2錢, 當歸 甘草 各 1錢, 附子炮 1-2錢, 薑 3片, 棗 2枚

4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461

42) 朱鍾天, 金敬堯 : 前掲書, p88

43)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461

44) 朱鍾天, 金敬堯 : 前掲書, p88

45)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461

46)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460

亡陽重證을 治療할 목적으로 사용한 處方으로 黃芪桂枝湯에서 白何首烏 대신 附子が 加味되었으며 桂枝附子湯에 黃芪와 當歸가 加味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6) 人參桂枝附子湯⁴⁷⁾

人參 4錢, 桂枝 3錢, 白芍藥 黃芪 各 2錢, 當歸 甘草灸 各 1錢, 附子炮 1-2錢, 薑 3片, 棗 2枚

少陰人の 亡陽證을 治療할 목적으로 사용한 處方으로 醫學入門의 桂枝附子湯에 黃芪, 當歸, 人參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處方이다. 또는 黃芪桂枝附子湯에 人參을 첨가하여 君藥으로 삼아서 만든 處方으로 볼 수도 있다.

(7) 人參官桂附子湯⁴⁸⁾

人參 5-10錢, 官桂 黃芪 各 3錢, 白芍藥 2錢, 當歸 甘草灸 各 1錢, 附子炮 2-2.5錢, 薑 3片, 棗 2枚

이 處方은 人參桂枝附子湯에서 桂枝가 官桂로 바뀌고 人參과 黃芪의 量을 증가시켰다. 邪氣를 發散시키고 부족한 陽氣를 보충하고 남아있는 陽氣를 더 이상 부족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치중한 處方이다. 즉, 人參官桂附子湯은 揚陽生津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亡陽證의 극도로 위험한 증세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處方이다.

2) 分析

위의 處方들은 升陽益氣나 升陽益氣에 固表作用이 더해진 處方들로 桂枝湯에 이러한 목적으로 藥材를 추가시켰다. 川芎桂枝湯에서 桂枝湯에 川芎과 蒼朮이 더해진 것은 少陰人の 특성상 川芎, 蒼朮이 기존의 本草學的 效能보다는 腎陽이 困窮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어 위로 上昇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藥物로 생각할 수 있다. 즉 川芎·蒼朮은 桂枝의 藥性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黃芪를 加味한 黃芪桂枝湯은 川芎桂枝湯의 升陽益氣作用에 도망가려는 陽氣를 붙잡으며 脾의 正氣를 보강하는 補脾固表의 정신이라 생각할 수 있다.

升陽益氣湯·升陽益氣附子湯·黃芪桂枝附子湯·人參桂枝附子湯 등의 處方은 亡陽證이 中證, 末證에 이르게 될수록 脾의 陽氣를 신속히 補強해주는 次元에서 人參의 量이 늘어나고 附子, 肉桂 등의 藥物이 增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亡陽證에 사용되는 升陽益氣附子湯·黃芪桂枝附子湯·人參桂枝附子湯·人參桂枝附子湯은 處方の 내용 및 목적이 유사한데, 이 處方들은 張仲景의 傷寒論에 있는 桂枝湯에서 유래한 것으로 李梴의 醫學入門에서 附子を 첨가하여 桂枝附子湯을 만들었고 李濟馬가 여기에 黃芪와 當歸를 첨가하여 이런 處方들을 만들었다. 桂枝湯은 惡寒發熱에 自汗하는 증세가 겸한 病을 治療하는 處方이며 亡陽證에 대한 治療는 李梴이 桂枝湯에 附子を 가하여 桂枝附子湯을 만들어서 그 基礎를 成立하였다. 여기에서 進一步하여 李濟馬는 少陰人이 갖는 體質적인 결함을 補肺氣하고 溫分肉하는 黃芪와 調營衛하면서 寒邪를 제거하는 桂枝로 君藥을 삼고 當歸를 추가하여 陽氣가 의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듦으로써 治療에 만전을 기한 것이다.

47)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揭書, p.460

48)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揭書, p.461, 544

5. 少陰人 表病證에 쓰인 다른 處方과의 比較

1) 處方 및 處方的 構成⁴⁹⁾

(1) 菴香正氣散, 香蘇散, 芎歸香蘇散

菴香正氣散

菴香 1錢5分, 紫蘇葉 1錢, 蒼朮 白朮 半夏 陳皮 青皮 大腹皮 桂皮 乾薑 益智仁 甘草 各5分, 薑 3片, 棗 2枚

香蘇散

香附子 3錢, 紫蘇葉 2錢5分, 陳皮 1錢5分, 蒼朮 甘草 各1錢, 薑 3片, 葱白 2莖

此方 出於危亦林得效方書中 治四時瘟疫 局方曰 昔有一老人 授此方 與一人 令其合施 城中大疫 服此皆愈

芎歸香蘇散

香附子 2錢, 紫蘇葉 川芎 當歸 蒼朮 陳皮 甘草 各1錢, 葱白 5莖, 薑 3片, 棗 2枚

(2)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 香附子八物湯

八物君子湯

人參 2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 各1錢, 薑 3片, 棗 2枚

十全大補湯

人參 白朮 白芍藥 甘草 黃芪 肉桂 當歸 川芎 白茯苓 熟地黃 各1錢, 薑 3片, 棗 2枚

○ 此方 出於王好古海藏書中 治虛勞

令考更定 此方 當去 白茯苓, 熟地黃 當用 砂仁 陳皮

香附子八物湯

香附子 當歸 白芍藥 各2錢, 白朮 白何首烏 川芎 陳皮 甘草 各1錢, 薑 3片, 棗 2枚

○ 嘗治 婦人思慮傷脾 咽乾舌燥 隱隱有頭痛 神效

(3) 補中益氣湯

人參 黃芪 各3錢, 甘草 白朮 當歸 陳皮 各1錢, 菴香 蘇葉 各3-5分, 薑 3片, 棗 2枚

(4) 獨參八物湯

人參 1兩, 黃芪 2錢,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 各1錢, 薑 3片, 棗 2枚

2) 分 析

(1) 菴香正氣散, 香蘇散

菴香正氣散은 和劑局方的 菴香正氣散에서 桔梗·白芷·厚朴·茯苓을 빼고 蒼朮·青皮·桂皮·乾薑·益智仁·炙甘草를 첨가한 處方이다. 適應症은 太陽證의 大腸怕寒, 陽明證의 表部의 邪氣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太陰證의 下利등이 있을 때 등이다. 菴香正氣散은 表裏를 조절할 수 있는 處方으로 鬱狂證에 이용되기도 하며 溫胃而降陰作用이 있어 太陰證에도 使用할 수 있다. 菴香正氣散과 少陰人 表病證의 他 處方과의 차이점은 少陰人 氣血虛의 상태를 改善시키는 川芎·當歸·白芍藥등의 補血藥이나 人參·黃芪·桂枝등의 補氣藥이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菴香正氣散이 虛證에 補益의 效能으로써 작용하는 處方이라기보다 氣血의 循環不全이나 陰陽升降등 運行力의 상실을 重視한 處方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⁰⁾

芎歸香蘇散은 香蘇散의 變方으로 香蘇散에 當歸와 川芎이 加해진 處方으로 芎歸香蘇散은 鬱狂證의 初

49)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체질학교실 : 前掲書, p.457,458,461,462

50) 朱鍾天, 金敬堯 : 前掲書, p88

期에 적합한 처방이다.

이 處方들은 由來는 다르나 鬱狂初證에 鬱蓄되어 있는 腎陽을 풀어 줌으로써 升陽益氣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川芎桂枝湯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桂枝·川芎·蒼朮 등으로 외부에서 둘러싸고 있는 邪氣를 열어 줌으로써 腎陽의 上升之氣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造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薑香·蘇葉·香附子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由來는 다르지만 處方의 정신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 香附子八物湯

八物君子湯은 八物湯에서 소양인 약재인 白茯苓과 熟地黃이 제거되고, 승양익기의 효능을 가진 黃芪와 脾氣를 고르는 陳皮가 八物湯에 加味되어 鬱狂證 處方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⁵¹⁾ 八物君子湯에서 人蔘을 빼고 白何首烏로 바꾸면 白何烏君子湯이 되고, 또 人蔘·黃芪를 1錢으로 하고 白何首烏·官桂各 1錢을 加하면 十全大補湯이 되며, 또 本方에 人蔘1兩, 黃芪 1錢을 가하면 獨蔘八物湯이 된다. 少陰人 十全大補湯은 王好古의 十全大補湯에서 白茯苓·熟地黃을 빼고 砂仁·陳皮가 加해졌다. 그리고 八物君子湯과 十全大補湯은 그 用途가 서로 비슷하며 陰陽을 고르게 하고 虛弱을 補한다.⁵²⁾

이 處方들은 鬱狂重證에 사용하는 處方인데, 鬱狂重證에 이르러서는 腎陽의 上升之氣가 많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단지 表邪를 열어주기만 해서는 不足하다. 따라서 脾의 근원적 기운을 보강하여 上升之氣를 인위적으로 增強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약물로, 人蔘, 白朮, 當歸, 白芍藥 등의 補脾之劑가 主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補中益氣湯

亡陽中證의 處方으로, 升陽益氣湯의 정신을 가진 處方이나 處方의 由來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처방은 李杲의 補中益氣湯에서 柴胡와 升麻를 薑香과 蘇葉으로 대체하고 分量을 높인 것이고 升陽益氣湯은 補中益氣湯의 정신과 桂枝湯의 정신이 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補中益氣湯이 升麻 柴胡 대신 薑香·蘇葉이 들어간 것은 아직 腎陽이 表邪로 말미암아 困熱되어 있는 부분을 薑香·蘇葉으로 解表하여 陽氣가 上升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思料된다.

(4) 獨蔘八物湯

本方은 鬱狂末證에 사용되는데, 鬱狂中證에 사용되는 八物君子湯에 人蔘과 黃芪를 增量시켰다. 人蔘은 補脾和脾작용이 있으며 清越之力이 강하기 때문에 鬱狂末證에 강력하게 陽氣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人蔘이 多量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살펴보면 少陰人 表病證에 사용된 薑香正氣散·香蘇散·八物君子湯·香附子八物湯·十全大補湯·補中益氣湯·獨蔘八物湯 등은 桂枝湯의 變方은 아니지만 각각의 病證 段階에 있어서 桂枝湯의 變方과 같은 정신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朱鍾天, 金敬堯 : 前掲書, p86

52) 洪淳用, 李乙浩 : 前掲書, p230

6. 少陰人 新定處方중 裏病證에 사용중인 桂枝湯 連系方

1) 處方內容⁵³⁾ 및 目的⁵⁴⁾

(1) 桂枝半夏生薑湯

生薑 3錢, 桂枝 2錢, 半夏 白芍藥 白朮 陳皮 甘草 各1錢

이 處方은 太陰證의 變證인 水結胸이나 虛寒嘔吐를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處方이다. 본 處方은 桂枝湯과 瀉心湯의 정신이 結合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太陰證에 사용되는 다른 處方들에 비해 가법제 위로 뜨는 성질이 강하므로 中上焦쪽의 陰濁을 풀어 준다. 이 處方に 枳殼·靑皮·烏藥·南星을 加하면 祛風散이 되는데 祛風散은 少陰人의 구안와사·痰證·半身不隨·歷節風등을 치료한다.

(2) 蒜蜜湯

白何烏 白朮 白芍藥 桂枝 茵陳 益智仁 赤石脂 罌粟殼 各1錢, 薑 3片, 棗 2枚, 大蒜 5根, 清蜜 半匙

이 處方은 痢疾을 치료하는 方劑로 痢疾은 太陰證 變證이므로 裏陰이 降氣되지 못하고 막힌 病證을 따듯하게 하면서 소통시키는 의미로 쓰인 方劑이다. 桂枝湯과 白何烏理中湯(白何首烏·白朮·芍藥·桂枝)의 의미가 結合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2) 分析

이상의 處方에서 볼 수 있듯이 裏病證의 처방 중에도 桂枝湯 정신이 연계된 處方이 桂枝半夏生薑湯, 蒜蜜湯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처방 구성 내용이 桂枝湯의 약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太

陰病證에 表病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위의 處方들은 溫胃降陰이나 健脾降陰의 作用이 있는 處方들로 桂枝湯에 이러한 목적으로 藥材를 추가 시켰다.

Ⅲ. 考 察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은 기존 病證觀을 四象體質 病證觀으로 재조명하였는데 少陰人 病證은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대별된다. 少陰人은 장부특성상 陰化되기 쉬우므로 陽暖之氣가 保命之主라는 것을 바탕으로 升降概念을 운용한다. 그 중 表病은 腎大함으로 인해 생긴 陰化된 기운을 어떻게 陽化시키느냐에 主안점을 두고 升降益氣를 治法으로 하고 있으며, 裏病은 脾小로 인해 생긴 陰實之氣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裏陰降氣를 治法으로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을 근거로 보면 少陰人의 病證은 傷寒論의 病證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處方 또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桂枝湯은 少陰人 表裏病證에 전반적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處方들은 體質的 概念에 의해서 재해석되며 이에 따라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에서 有汗에는 桂枝湯을 쓰고 無汗에는 麻黃湯을 사용했지만 李濟馬는 無汗者에는 桂枝湯을 쓰고 有汗者에는 黃芪桂枝湯이나 升陽益氣湯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두 醫家의 治法이 차이가 나는 것은 病理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張仲景은 邪氣를 위주로 바라본 반면 李濟馬는 正氣를 위주로 보았기 때

5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462-464

5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505

문이다. 이처럼 두 醫家の 病理가 다르기 때문에 少陰人의 無汗과 傷寒論에서의 無汗은 의미도 다를 수 밖에 없다. 少陰人 表病論에서의 無汗은 현재는 無汗이나 체질적인 素因으로 보아 장차 汗이 自出할 無汗이고 傷寒論에서 無汗은 체질적 素因으로 장차 도 汗이 自出할 수 없는 無汗이다. 그리고 亡陽證은 危證이고 太陽表病의 無汗을 장차 汗出할 수 있으므로 汗出하기 전에 豫治로 桂枝湯을 미리 쓴 것이다. 張仲景이 말한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 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主之'는 太陰人 傷寒表證으로 분류되며 이는 少陰人 傷風의 無汗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張仲景은 少陰人의 病證과 藥理는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는 있으나 체질인식이 없었던 까닭에 少陰人과 太陰人의 病證이 桂枝湯證과 麻黃湯證에 혼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체질에서와 마찬가지로 少陰人의 處方들은 處方 形成에 있어서 몇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既存處方에서 加減의 형식을 취하여 四象方이 형성되었으며 既存處方에서 체질에 맞지 않는 藥材나 체질에는 맞으나 病證에 부적합한 藥材를 빼고 病證에 적합한 少陰人 藥材를 加味하거나 增量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少陰人 表病證의 鬱狂初證은 주로 張仲景의 理論 및 傷寒論 處方을 根據하였고 鬱狂中證에서는 張仲景의 理論보다 宋·元·明 醫家の 處方に 根據한 處方을 제시하였고, 亡陽證에서는 張仲景의 理論이 거의 引用되고 處方 또한 이에 根據한 四象方이 다수 나타나고 간혹 補中益氣湯, 桂枝附子湯등의 宋·元·明 醫家の 處方을 근거한 四象方이 나타난다. 裏病의 太陰證 初證은 張仲景의 理論 및 處方(瀉心湯證)이 引用되었으나 실제로

宋·元·明 醫家の 處方に 근거한 四象方이 나타나고, 太陰證 中證과 少陰證에 이르면 張仲景과 宋元明 醫家の 理論 및 處方이 다수 나타나고 이에 근거한 四象方이 나타난다.⁵⁵⁾

壽世保元에서 나타난 桂枝湯 連系方은 총 11方인데 이중 傷寒論 經驗方에는 當歸四逆湯 1方이 있으며 後世 經驗方에는 桂枝附子湯 1方이 있으며 新定處方에는 9方이 있다. 新定處方중 桂枝湯 連系方은 表病證方이 7方이 있으며 裏病證方이 2方이 있는데 表病證에는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등이 있고 裏病證에는 桂枝半夏生薑湯, 蒜蜜湯 등이 있다. 이들 處方들은 病證論에서 病證과 臨床經驗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病證論 말미에 處方을 정리하였는데 이들 處方중에서 傷寒論 經驗方과 後世 經驗方 그리고 新定處方중 人蔘官桂附子湯은 病證論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말미에 제시되어 있으며 蒜蜜湯은 病證論에서 그림자만 비추고⁵⁶⁾ 말미에 정리되어 있다.

桂枝湯의 連系方은 表病證의 鬱狂證과 亡陽證, 裏病證의 太陰證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亡陽證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表病證에 쓰이는 處方들은 升陽益氣나 升陽益氣에 固表作用이 더해진 處方들로 桂枝湯에 이러한 목적으로 藥材를 추가 시켰는데 亡陽重證에 이르게 될수록 脾의 陽氣를 신속히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人蔘·附子·肉桂 등의 藥물이 증가되고 있다.

少陰人에서 각 病證에 사용되는 處方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病證에 사용되는 處方들 중 處方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川芎桂枝

55) 조황성 :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의학회지, 7(2), p23, 1995

56) 洪淳用, 李乙浩 : 前掲書, p214

탕과 黃芪桂枝湯을 각각 3가지의 藥材가 加味되어 각각 서로 다른 病證을 치료하게 된다. 그리고 藜香正氣散은 表病證과 裏病證에서 모두 쓰이는데 이처럼 病證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治療의 실제 수단인 處方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病證에 사용되는 處方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少陰人은 장부특성상 陰化되기 쉬우므로 陽暖之氣가 保命之主라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공통분모에 따라서 각 處方들은 동일한 공통의 목적을 두고 升降概念의 治法이 運用되기 때문이다.

既存 傷寒論과 宋·元·明 時代의 病證 및 處方들이 少陰人의 新定處方 形成에 根據가 되었으며 여기에 體質的 概念에 의한 病證과 處方의 補完이 이루어졌는데 李濟馬는 少陰人의 體質의 特性을 고려하여 體質에 어긋난 藥材를 빼고 더욱더 효과적인 治療를 위하여 필요한 藥材를 加味하여 四象方을 형성하였으며, 다시 이러한 處方들에 根據해서 이러한 概念의 四象方을 새로이 立方하였다. 이러한 四象方의 형성에서 少陰人에 있어서는 桂枝湯이 가장 기본이 되는 處方이라 할 수 있는데 桂枝湯에서부터 變用된 處方으로는 表病證에 있어서 川芎桂枝湯·黃芪桂枝湯·升陽益氣湯·升陽益氣附子湯·人蔘桂枝附子湯·人蔘官桂附子湯·黃芪桂枝附子湯 등의 處方이 있으며 이외에 藜香正氣散·香蘇散·芎歸香蘇散·八物君子湯 등은 桂枝湯의 變方은 아니지만 각각의 病證 단계에 있어서 桂枝湯 變方과 같은 정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處方중 升陽益氣附子湯·人蔘桂枝附子湯·人蔘官桂附子湯·黃芪桂枝附子湯 등은 處方의 形成過程을 두 가지 過程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桂枝湯에서 黃芪桂枝湯이 형성된 후에 病證에 상응하는 藥材들이 보충되어 형성되었다는 것과 桂枝湯에서 桂枝附子湯을 거쳐서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 概念이 종합되어서 이들 處方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少陰人의 病證은 保命之主인 陽暖之氣의 부족정도에 따라 輕重으로 나눌 수 있다. 表病證의 處方들은 升陽益氣를 목적으로 하는데 病證이 重證으로 갈수록 處方 構成 또한 脾의 陽氣를 신속히 보강해 주기 위하여 人蔘·附子·肉桂 등의 藥물이 증가되며 裏病證에 있어서 處方들은 裏陰降氣를 목표로 하는데 重證에 이를수록 역시 人蔘·附子·肉桂 등의 陽氣를 강력히 보강시키는 藥물들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少陰人 病證 治療에 窮極의 목적이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지키는 것이며 表病證과 裏病證 모두 病證이 重證으로 진행될수록 陽暖之氣가 부족해지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人蔘·附子·肉桂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시된다. 이러한 이유로 表病證과 裏病證의 重證에 사용되는 處方들은 유사한 藥物 構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桂枝湯이 少陰人의 處方 形成에 있어서 중요한 根據가 되었으며 桂枝湯이 少陰人의 表病證과 裏病證에서 病證에 따라 變用되는 것을 고찰해 보았는데 이는 기존 한의학이 四象醫學에서 어떻게 解釋되고 發展되는 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체질에 있어서도 이러한 研究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런 研究들이 종합되어 處方의 形成과 方劑 原理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기존 한의학적 觀點이 아닌 四象醫學의 觀點에서 기존 한의학에 대한 四象醫學의 解釋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V. 結 論

이상에서 少陰人 病證과 處方을 고찰하여 桂枝湯의 變用에 대한 사항을 고찰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少陰人 表病證은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별되며 裏病證은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구별되며 表病證은 陽氣의 進退여부에 따라 輕重이 나뉘게 되고 裏病證은 冷氣의 聚散 輕重에 따라 나뉘게 된다.
2. 壽世保元에 나타난 桂枝湯의 連系方은 총 11方이 있는데 이중 傷寒論 經驗方에는 當歸四逆湯 1方이 있으며 後世經驗方에는 桂枝附子湯 1方이 있으며 新定處方에는 9方이 있는데 桂枝湯은 亡陽證에서 그 정신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新定處方중 桂枝湯 連系方은 表病證方이 7方이 있으며 裏病證方이 2方이 있는데 表病證에는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등이 있고 裏病證에는 桂枝半夏生薑湯, 蒜蜜湯 등이 있다.
4. 藿香正氣散·香蘇散·芍歸香蘇散·八物君子湯 등은 桂枝湯의 變方은 아니지만 각각의 病證 단계에 있어서 桂枝湯 變方과 같은 정신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少陰人에서 病證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病證에 사용되는 處方이 내용상 유사한 점을 보이는데 이는 陽暖之氣가 保命之主라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공통분모에 따라서 각 處方들은 동일한 공통의 목적을 두고 升降概念의 治法이 운용되기 때문에 파악 된다.
6. 少陰人의 病證은 表病證과 裏病證 모두에서 病證이 重證으로 진행될수록 陽暖之氣가 부족해지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人蔘·附子·肉桂 등의 약물이 공통적으로 중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2. 蔡仁植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1
3.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92
4. 文濬典 等篇 :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5. 韓方診斷學(上下), 서울, 成輔社, 1988
6. 郭靄春 : 黃帝內經 素問校註語錄, 서울, 醫聖堂, 1993
7. 郭靄春 : 黃帝內經 靈樞校註語錄, 서울, 醫聖堂, 1993
8. 李培生 :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9.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4
10. 李尙仁 等篇 : 方劑學, 서울, 永林社, 1990
11. 申載鏞 : 方藥合編解說, 서울, 圖書出版 成輔社, 1989
12. 汪訥庵 : 醫方集解, 서울, 一中社, 1989
13. 東洋醫學叢書IV 方劑學, 서울, 一中社, 1990
14.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한얼문고, 1973
15.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 :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關한 文獻考察(1), 사상의학회지 7(1), 1995
16. 高炳熙 : 少陰人 少陽人 病證論의 概要, 서울, 月刊韓方系6월호, 1991
17. 金龍國 : 亡陽, 亡陰證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사상의학회지 3(1), 1991
18. 朱鍾天, 金敬堯 :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9(2),

1997

19. 조황성 :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의학
회지, 7(2), 1995
20. 宋一炳 :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0(2), 1998